

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다집단 분석*

Multi Group Analysis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pous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f Parents with Six-Month-Year Old Infants

정미라¹ 조혜영² 이순행³

Mi-Ra Chung¹ Hye-Young Jo² Soon-Hang Lee³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lliance and parenting stress,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indicators were the same for mothers and fathers.

Methods: A sample of 228 parents (114 mothers and 114 fathers) of 6 month old infants in Gyeonggi Province completed measures of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and Parenting Stress Inventory-Short Form.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ing alliance produced its effect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stress. Using multiple group SEM analyses, it revealed that fathers parenting efficacy was mediated by parenting alliance and that the strength of the pathways was stronger for fathers than for mother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ing alliance can improve father's parenting efficacy. The differential predictors of mother and father efficac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spous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parents of 6 month old infants, multi group structure model

*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3A2925502)

1 제1저자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교신저자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johyey@sehan.ac.kr)

3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외래강사

I. 서론

영아기는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들에게 양육환경은 이후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영아기 부모는 자녀 출산에 이어 부모라는 지위를 새롭게 부여받으면서 자녀 양육의 효능감과 역량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의 변화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6개월에서 12개월에 부모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원정선, 1989). 출생부터 6개월까지 성장발달은 매우 급진적인데, 신체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있기 시작하면서 주변 물체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영아는 움직임이 증가하여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시기로 양육자의 보다 면밀한 주의집중이 필요하므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자녀의 애착행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민감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양육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한 시기이다(Mulsow, Caldera, Pursley, & Reifman, 2002).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Sinai & Tikotzky, 201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와 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질에 영향을 주고 영아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므로(Bernier, Calkins, & Bell), 이 시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역할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감으로(Mulsow et al., 2002)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김지영, 2015; Morgan, Robinson, & Aldridge, 2002)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Deater-Deckard, 1998; Kazdin & Whitley, 2003; Khaleque & Rohner, 2002;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변인으로 배우자나 가족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김혜금, 조혜영, 2015; Crnic & Greenberg, 1990) 양육효능감(손세희, 한창근, 2016;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 그리고 민감성 및 애착(Seah & Morawska, 2016)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결국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주변의 지원과 내적 자원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배우자 지지는 가족체계 내에서 배우자를 통해 받는 지지이며, 정서, 심리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Voydanoff, 2005)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밝혀지고 있다(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김지영, 2015;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허은경, 김영희, 2004;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Leung, Leung, Chan, Tso, & Ip, 2005).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영아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Mulsow et al., 2002)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정은영, 강민주, 2015)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명원, 강민주, 2011; 허은경, 김영희, 2004).

부모 자신의 양육효능감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인지하여 자녀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ash & Johnston, 1990). 선행 연구들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김민정, 이방실, 정미라, 2016;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Houry-Kassabri, Attar-Schwartz, & Zur, 2014),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이정화, 한희승, 최란, 2012)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이주연, 2009; 최형성, 2005; Teti & Gelfand, 1991).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지가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반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지와 스트

레스 간의 관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Lavenda & Kestler-Peleg, 2017). 한편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효능감을 예측하였으며(Cohen, Holloway, Domínguez-Pareto, & Kuppermann, 2015) 배우자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연구도 있어(최윤희, 문혁준, 2016; Sanders & Woolley, 2005) 배우자 지지는 양육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지지와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밝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과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과(김기원 등, 2010; 김지영, 2015; 채선미 등, 1999; 허은경, 김영희, 2004;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Leung et al., 2005)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김민정 등, 2016; 류기자 등, 2009; 이정화 등, 2012)와 매개효과(이주연, 2009; Teti & Gelfand, 1991)를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으며, 연구대상도 대부분 어머니에 국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양육자로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다(Fuligni & Brooks-Gunn, 2002).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통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김명원, 강민주, 2011; 양정선, 신용연, 2013). 게다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eah & Morawska, 2016; Vismara et al., 2016; Widarsson, Engstrom, Berglund, Tyden, & Lundberg, 2013). 그러나 아직까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배우자 지지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한 집단의 특성 분석결과보다 더 많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양육변인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로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연구가 있었다(손세희, 한창근, 2016). 이외에도 양진희와 김영철(2016)은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양육분담보다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좌우됨을 밝힌바 있다. 김민정 등(2016)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단기종단연구에서도 6개월, 9개월 영아 부모 자신의 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배우자의 양육효능감은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유용하지만,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부분인 반면, 아버지는 사회생활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간주된다(Noppe, Noppe, & Hughes, 199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예측요인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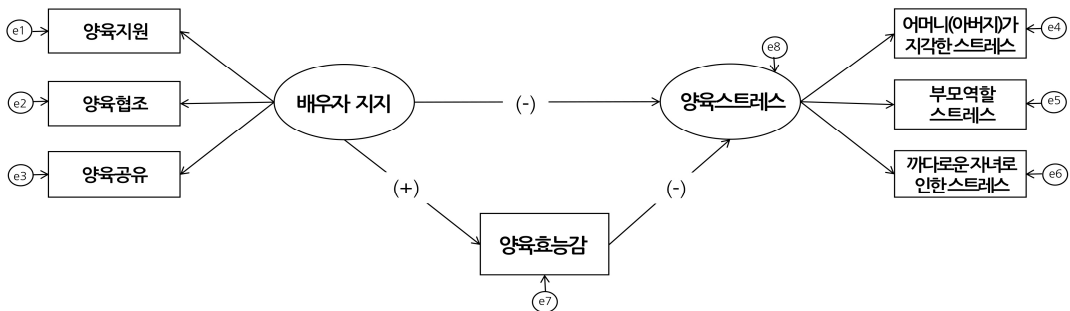
6개월 영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수준은 부모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Seah & Morawska, 2016)에 기초할 때,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집단별로 알아보는 본 연구의 시도는 집단에 따른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그림 1]), 이러한 과정이 부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 MGA, 이하 MGA)을 실시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부모 두 집단 간 모형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는 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228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6개월 영아를 둔 부모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의 주 양육자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에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자녀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김수정, 2009) 반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안정된 애착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이다(Cohn, Camp-

bell, & Ross, 1991).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를 선정한 이유는 경기도의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 전체 26.0%를 차지(통계청, 2017)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보건소, 소아과 및 산부인과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116가정을 모집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32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228부(98.3%)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1.42세이며, 대학교 졸업이 91명(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3.98세이며, 대학교 졸업이 92명(80.7%)으로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63명(55.3%), 여아 51명(44.7%)으로 남아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28)

구분	빈도	%	N
주양육자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5	4.4	114
대학교졸업	91	79.8	
대학원졸업	18	15.8	
주양육자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30	26.3	114
30세 이상 ~ 35세 미만	75	65.8	
35세 이상 ~ 40세 미만	8	7.0	
40세 이상	1	.9	
주양육자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3	2.6	114
대학교 졸업	92	80.7	
대학원졸업	19	16.7	
주양육자 아버지 연령			
30세 미만	9	8.0	113
30세 이상 ~ 35세 미만	64	56.6	
35세 이상 ~ 40세 미만	33	29.2	
40세 이상	7	6.2	
영아 성별			
남	63	55.3	114
여	51	44.7	

2. 연구도구

1)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Nugent(1987)의 The Father-caretaking Inventory와 Abidin(1990)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를 신숙재(1997)가 번안한 것을 민은홍(2008)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알아본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정된 설문지를 영아 아버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꾸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민은홍(2008)이 사용한 17문항을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이하 EFA) 절차를 통해(강태훈, 조혜영, 오민아, 2013) 3요인이 추출되었다(KMO 값: .87, Bartlett 구형성 검증값: 1405.05, df : 136, $p < .001$).

구체적인 요인 내용을 살펴보면 1요인은 3문항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43부터 .87범위였으며, 양육지원(예: 1. ‘남편은(아내는) 내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때 육아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거나 도움을 준다’, 2. ‘남편은(아내는) 내가 부모역할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등)으로 명명하였고, 2요인은 8문항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48부터 .76범위였으며, 양육협조(예: 1. ‘남편은(아내는) 아이가 울 때 안고 달래준다’, 2. ‘남편은(아내는) 아이를 목욕시킨다’ 등)으로 명명하였고, 3요인은 6문항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56부터 .75범위였으며 양육공유(예: 1. ‘남편과(아내와) 함께 아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2. ‘남편과(아내와) 나는 아이의 특성이나 능력을 파악하는데 있어 의견이 일치한다’ 등)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가 응답하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지원 .61, 양육협조 .81, 양육공유는 .84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지원 .60, 양육협조 .79, 양육공유는 .78로 나타났다. 전체는 양육지원 .60, 양육협조 .80, 양육공유 .82로 나타났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PPC)를 안지영(2000)이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Floyd 등(1998)은 양육효능감(15문항)을 단일척도로 사용한 반면, 안지영(2000)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7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8문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변인(예: 1. ‘나는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잘 알고 있다’, 3. ‘부모 노릇은 나를 지치고 진 빠지게 한다’ 등)으로 처리하여 총 15문항으로 부모가 응답하며, 4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모두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측정변인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어머니 .78, 아버지 .84, 전체 .82로 나타났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을 안

지연(1999)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3요인으로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아버지)가 지각한 스트레스 8문항(예: ‘나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등), 부모역할 스트레스 10문항(예: ‘내 아이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만큼 빨리 못 배우는 것 같다’ 등),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7문항(예: ‘내 아이가 나를 크게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때가 종종 있다’ 등) 총 25문항으로 부모가 응답하며, 4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모두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69, 부모역할 스트레스 .82,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77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80, 부모역할 스트레스 .88,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79로 나타났다. 전체는 배우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76, 부모역할 스트레스 .85,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7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유아교육 전문가 3명과 교수 1명에게 질문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2014년 10월 둘째 주부터 2가정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검증받은 결과 이상이 없어 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이주옥, 2008)에 기초하여 6개월 영아를 첫째 자녀로 둔 부모 가운데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116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응답하여 총 232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228부(98.3%)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22.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빈도(%)로 알아보았으며, 연구에서 사용하는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이하 CFA)을 통해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X^2 값을 확인하지만, X^2 값은 사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적합지수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chi-square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08이하일 때 수용가능하고, SRMR(standardized RMR)은 .05이하일 때 우수하며, 증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는 .9이상으로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라 해석한다.

측정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이하 SEM)으로 알아보았으며, 결측치는 검증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Ibrahim, Lipsitz, & Chen,

1999) 불완전한 자료를 평균대치법(mean imputation)으로 처리하였다.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 이하 ML)과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 간의 구조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 검증 후에 MGA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기 전 측정변인인 배우자 지지의 양육지원, 양육협조, 양육공유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배우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계수 (N = 228)

	1-①	1-②	1-③	2-①	3-①	3-②	3-③
1. 배우자 지지							
① 1요인_양육지원	1.00						
② 2요인_양육협조	.40**	1.00					
③ 3요인_양육공유	.48**	.59**	1.00				
2. 양육효능감							
① 양육효능감	.15*	.20**	.28**	1.00			
3. 양육스트레스							
① 배우자가 지각한 스트레스	-.10	-.17**	-.26**	-.55**	1.00		
② 부모역할 스트레스	-.13	-.24**	-.32**	-.30**	.27**	1.00	
③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12	-.17*	-.21**	-.42**	.44**	.45**	1.00
M							
(전체)	3.00	3.08	3.19	2.73	2.16	1.47	1.91
(어머니/아버지)	3.03/2.97	3.10/3.07	3.21/3.17	2.70/2.76	2.28/2.04	1.48/1.45	1.98/1.83
SD							
(전체)	.53	.38	.37	.32	.39	.36	.43
(어머니/아버지)	.56/.50	.42/.33	.40/.33	.29/.34	.35/.38	.35/.37	.42/.41
왜도							
(전체)	.01	.73	.52	.18	-.06	.45	-.28
(어머니/아버지)	-.18/.23	.54/1.04	.40/.64	.07/.18	-.11/.18	.48/.45	-.17/-.48
첨도							
(전체)	.49	.37	.01	.17	.58	-1.03	-.04
(어머니/아버지)	.68/.27	-.14/1.18	-.34/.48	-.37/.35	1.24/.82	-.80/-1.20	.47/-.78

* $p < .05$, ** $p < .01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지의 일부 하위영역 및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지각한 스트레스는 배우

자 지지의 양육협조($r = -.17, p < .01$), 양육공유($r = -.26, p < .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지원($r = -.10, p > .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육효능감($r = -.55,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지의 양육협조($r = -.24, p < .01$), 양육공유($r = -.32, p < .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지원($r = -.13, p > .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육효능감($r = -.30,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지의 양육협조($r = -.17, p < .05$), 양육공유($r = -.21, p < .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지원($r = -.12, p > .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육효능감($r = -.42, p < .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은 양육효능감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의 양육지원($r = .15, p < .05$), 양육협조($r = .20, p < .01$), 양육공유($r = .28, p < .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1.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가 1개인 양육효능감을 제외한 배우자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3.24(df = 8, p = .10)$, SRMR = .04, RMSEA = .05(.00 ~ .10), NFI = .96, IFI = .98, TLI = .97, CFI = .98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SRMR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13.24	8	.10	.04	.96	.98	.97	.98	.05(.00/.10)
기준 값	χ^2 값과 임계치 비교		$p > .05$	$< .05$	$\geq .90$	$\geq .90$	$\geq .90$	$\geq .90$	$< .08$

측정모형의 CFA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요인부하량이 .56에서 .86범위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CR)는 .9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8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 구조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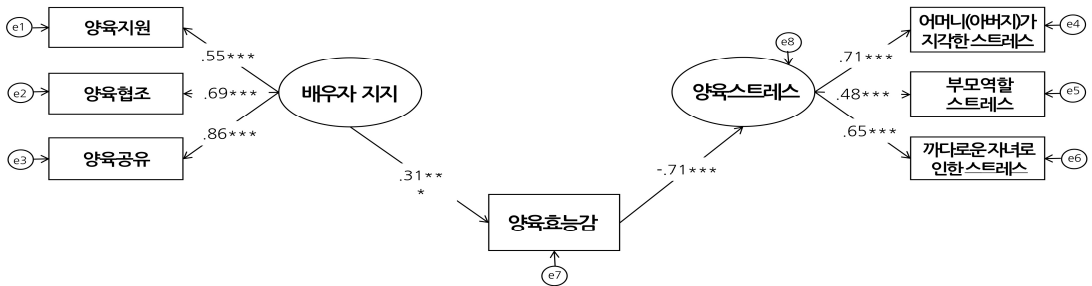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함이 가정된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2]에 제시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은 연구모형으로 상정된 부분매개모형에 비하여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모형을 [그림 3]과 같이 부분매개모형으로 살펴보면 결과, $\chi^2 = 27.18(df = 12, p = .007)$, SRMR =

.048, RMSEA = .08, NFI = .93, IFI = .96, TLI = .93, CFI = .9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X^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CFA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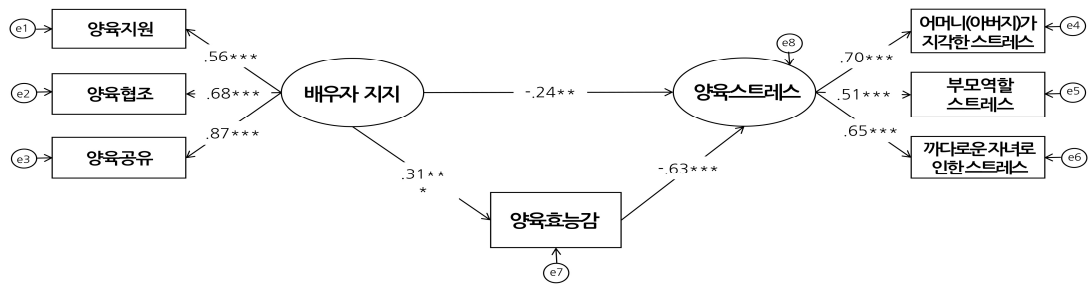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C.R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지수 (AVE)
배우자 지지	1요인_양육지원	1.00	.56			.95	.86
	→ 2요인_양육협조	.96***	.69	.13	7.18		
	3요인_양육공유	1.18***	.86	.17	6.91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아버지)가 지각한 스트레스	1.00	.56			.93	.82
	→ 부모역할 스트레스	.99***	.60	.17	5.73		
	까다로운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1.46***	.74	.26	5.69		

*** $p < .001$.



*** $p < .001$.

〈그림 2〉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완전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 $p < .01$, *** $p < .001$.

〈그림 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앞서 제시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과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지수	χ^2	df	p	$\Delta\chi^2$	Δdf	SRMR	NFI	IFI	TLI	CFI	RMSEA(LO/HI)
[그림 2]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36.79	13	.000			.073	.91	.94	.90	.94	.09(.06/.13)
[그림 3]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27.18	12	.007	9.61 (p=.002)	1	.048	.93	.96	.93	.96	.08(.04/.11)

<표 6>은 최종모형인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이다.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변수들의 표준화 계수(β)는 -.63부터 .31범위에 있으며, 임계치(C.R.)는 ± 1.96 이상으로 $p < .01$,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가 양육효능감($\beta = .31$, $p < .001$)과 양육스트레스($\beta = -.24$, $p < .01$)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beta = -.63$,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p
배우자 지지	→ 양육효능감	.36	.31	.09	3.96	***
	→ 양육스트레스	-.25	-.24	.08	-2.96	**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54	-.63	.07	-7.88	***

** $p < .01$, *** $p < .001$.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변인들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bootstrap)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배우자 지지	→ 양육효능감	.31*		.30*
	→ 양육스트레스	-.24*	-.20*	-.44*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63*		-.63*

* $p < .05$.

배우자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beta = .31, p < .05$)으로 영향을 주며,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접적($\beta = -.24, p < .05$), 간접적($\beta = -.20, p < .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beta = -.63, p < .05$)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모에 따른 다집단 분석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으로 설정된 부분매개모형을 바탕으로 6개월 영아 부모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MGA를 실시하였다. MGA에 앞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Hong, Malik, & Lee, 2003)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동일성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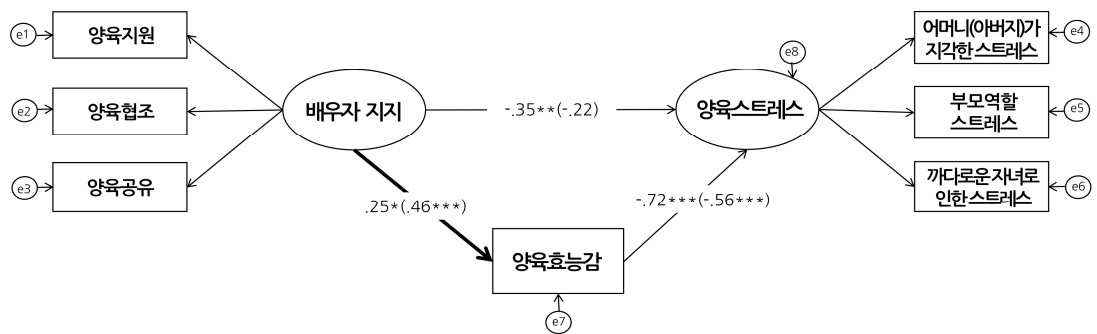
모형	χ^2	df	p	χ^2/df	$\Delta\chi^2$	Δdf	TLI	CFI	RMSEA(LO/HI)
1단계_형태동일성	41.29	24	.015	1.72			.92	.96	.06(.03/.09)
2단계_측정동일성	42.17	28	.042	1.51	1단계 .88	4	.94	.96	.05(.01/.08)
					($p = .927$)				
3단계_절편동일성	50.97	34	.031	1.50	1단계 9.68	10			
					($p = .469$)				
					2단계 8.80	6	.95	.96	.05(.02/.07)
					($p = .185$)				

어머니($N = 114$)와 아버지($N = 114$) 간의 형태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이 두 집단자료에 적합한지 검증한 결과, $\chi^2 = 41.29(df = 24, p = .015)$, $\chi^2/df = 1.72$, $RMSEA = .06(.03 \sim .09)$, $TLI = .92$, $CFI = .96$ 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에서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단계인 집단 간 구조모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은 집단 간 반응결과에 대한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MacCallum, Roznowski, Mar, & Reith, 1994) 요인적재치(regression weight)에 집단별로 동일성을 제약한 후 분석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Delta\chi^2 = .88, p = .927$), $TLI(\Delta TLI = .02)$ 와 $RMSEA(\Delta RMSEA = -.01)$ 가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지지되어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음 단계인 절편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동일성($\Delta\chi^2 = 9.68, p = .47$)과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기저모형($\Delta\chi^2 = 8.80, p = .185$)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모형이 집단에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정규분포를 이용한 대응별 모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 지지→양육효능감(C.R. = 2.00)’이 C.R.값에서 ±1.96 이상으로 나타나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배우자 지지가 양육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다른 회귀계수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분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의 측정모형 동일성이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에서 검증되어 보다 구체적인 경로계수 비교를 위해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경로계수 차이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주. 제시된 수치는 여성집단 표준화계수 기준이며, 집단 차이는 ‘배우자 지지->양육효능감’ 경로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완전매개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 지지→양육효능감($\Delta X^2 = 4.72, p = .03$)’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는 어머니 보다 배우자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모형의 어머니, 아버지 집단별 모수 추정치 비교(기저모형)

경로		어머니		아버지		ΔX^2	Δdf
		비표준화(B)	표준화(β)	비표준화(B)	표준화(β)		
배우자 지지 →	양육효능감	.24*	.25	.67***	.46	4.72* ($p = .030$)	1
	양육스트레스	-.23**	-.35	-.28	-.22	.06	1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51***	-.72	-.49***	-.56	.02	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6개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집단으로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임을 밝힌 연구들(김기원 등, 2010; 김지영, 2015; 박형경, 문혁준, 2015; 허은경, 김영희, 2004; Leung et al.,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Mulsow et al., 2002)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며, 배우자의 지지가 견고하게 이루어질 때 양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로의 역할 전환은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를 이끄는 과정이므로 취약한 심리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Feldman, 2007; Kim & Swain, 2007). 특히 영아 부모는 부모역할 수행이 서툴고 어려운 시기지만, 배우자 간의 지지는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공동양육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관련 매뉴얼 개발이나 가정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역량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특히,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제도개선과 함께 양육에 서툴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도 부모 역할이 동기화 되어 즐겁게 양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배우자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변인임을 밝힌 연구들과(김민정 등, 2016; 류기자 등, 2009; 이정화 등, 2012)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며, 변인은 상의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효과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들(이주연, 2009; 최형성, 2005; Teti & Gelfand, 1991) 지지하는 결과이다. 양육에 대한 높은 효능감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권미경, 2011) 효과적이므로 영아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배우자 지지가 높다고 인식하는 아버지일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김낙홍, 박영숙, 2016) 배우자 간의 서로 존중과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화법이나 부모코칭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배우자 지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부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부분 조절 효과임이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배우자 지지가 증가할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아버지에게 배우자의 높은 지지는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힌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육은 아직까지 어머니의 몫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면 풍부한 양육정보에 노출되는 반면, 아버지는 이러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부모됨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지지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므로(이은실, 최혜영, 2009)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역할에 긍정적인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Bouchard & Lee, 2000) 부모됨과 어머니의 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배우자 지지의 영향력의 차이가 입증된 만큼, 집단에 따라 양육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양육효능감이 높은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끈다는 연구결과들을(Ardelt & Eccles, 2001; Brown, Mangelsdorf, & Neff, 2012; Holmes & Huston, 2010) 고려할 때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남아있어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하며, 양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들어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자녀 발달과 연계하여 이들의 양육 역할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등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가정에서의 아버지 양육역할은 표면적으로 어머니를 돕는 주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로 나타났고, 아버지는 어머니 보다 배우자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지지로 양육효능감이 더욱 향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머니의 지원을 통해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6개월 영아 부모가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집단에서 동일한 구조모형을 가지면서 배우자 지지가 양육효능감의 영향력 크기에서 차이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간 모형 차이를 규명하여 연구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양육정보 제공 및 지침서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모 간 집단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순위 역시 부모에게 주는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이주옥, 2008) 자녀의 출생순위를 고려한 집단 간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영아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근희, 김현정, 이완정, 2014)를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자녀의 성장 주기에 따라 종단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 경제적 상태 등의 주 양육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와 직

업만족도,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도 양육스트레스에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므로(Anderson, 2008; Harrison & Ungerer, 2002) 추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좀 더 생태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태훈, 조혜영, 오민아 (2013). 교육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방법연구**, **25**(3), 521-541. doi: 10.17927/tkjems.2013.25.3.521
- 권미경 (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6**(3), 143-160.
- 김근희, 김현정, 이완정 (2014). 발달위험군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333-346. doi: 10.14698/jkce.2014.10.6.333
-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낙홍, 박영숙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기분화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243-264. doi:10.21183/kjcm.2016.12.15.4.243
- 김명원, 강민주 (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8), 25-35.
- 김민정, 이방실, 정미라 (2016). 유아기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1-19. doi:10.14698/jkce.2016.12.03.001
- 김수정 (2009). 양육 상황에 따른 6개월 영아 어머니의 내적 상태와 신체 접촉 유형 간 관계. **사회과학연구**, **48**(2), 23-57.
- 김지영 (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23**(2), 91-100. doi:10.17547/kjsr.2015.23.2.91
- 김혜금, 조혜영 (2015).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1-14. doi:10.7466/JKHMA.2015.33.6.1
-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민은홍 (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경, 문혁준 (2015). 간호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가족과 환경연구**, **53**(6), 595-604. doi:10.6115/fer.2015.047

- 손세희, 한창근 (2016).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검증과 부모 간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0**(3), 117-141.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연 (1999). 아동의 정서인식능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선, 신용연 (2013). **가족 내 남성의 역할변화 촉진을 위한 가족사업 제안**. 경기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진희, 김영철 (2016).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3), 81-106.
- 원정선(1989).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실, 최혜영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7**(5), 13-22.
- 이정화, 한희승, 최란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1**(2), 89-109.
- 이주연 (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5), 35-48.
- 이주옥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정은영, 강민주 (2015).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및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9**(1), 201-226.
- 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 최윤희, 문혁준 (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배우자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 최형성 (2005). 남녀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인간발달연구**, **12**(4), 121-137.
- 통계청 (2017). 시군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에서 2017년 12월 1일 인출.
- 허은경, 김영희 (2004).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8**(2), 107-125.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irgini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3). Family pediatrics: Report of the task force on the family. *Pediatrics*, **111**(6), 1541-1571.

- Anderson, L. S. (2008).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in a diverse sample of parents of early adolescents in high-risk communities. *Nursing Research*, 57(5), 340-350. doi:10.1097/01.NNR.0000313502.92227.87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ernier, A., Calkins, S. D., & Bell, M. A. (2016).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brain development across infancy. *Child Development*, 87(4), 1159-1174. doi:10.1111/cdev.12518
- Bouchard, G., &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2), 37-53. doi:10.1300/J005v20n01_04
- Brown, G. L., Mangelsdorf, S. C., & Neff, C. (2012). Father involvement, paternal sensitivity, and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 the first 3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430. doi: 10.1037/a0027836
- Cohn, J. F., Campbell, S. B., & Ross, S. (1991). Infant response in the still-face paradigm at 12 months predicts avoidant and secure attachment at 12 month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4), 367-376. doi:10.1017/S0954579400007574
- Cohen, S. R., Holloway, S. D., Domínguez-Pareto, I., & Kuppermann, M. (2015). Support and self-efficacy among Latino and White parents of children with ID.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0(1), 16-31. doi:10.1352/1944-7558-120.1.16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doi:10.1111/j.1467-8624.1990.tb02889.x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doi:10.1111/j.1468-2850.1998.tb00152.x
- Feldman, R. (2007). Parent-infant synchrony and the construction of shared timing: Physiological precursors, developmental outcomes, and risk condi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3-4), 329-354. doi:10.1111/j.1469-7610.2006.01701.x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doi: 10.2307/1132278
- Fulgini, A. S., & Brooks-Gunn, J. (2002). Meeting the challenges of newparenthood : Responsibilities, Advice, and Perceptions. In N. Halfon, K. T. Mclearn, & M. A. Schuster (Eds.). *Child rearing in America : Challenges faci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pp.83-1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499753.004
- Harrison, L. J., & Ungerer, J. A.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 at 12 months postpartum.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58-773. doi:10.1037/0012-1649.38.5.758
- Holmes, E. K., & Huston, A. C. (2010). Understanding positive father-child interaction: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contributions. *Fathering*, 8(2), 203-225. doi:10.3149/fth.1802.203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doi:10.1177/0013164403251332
- Ibrahim, J. G., Lipsitz, S. R., & Chen, M. H. (1999). Missing covariates in generalized linear models when missing data mechanism is non-ignorabl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61(1), 173-190. doi:10.1111/1467-9868.00170
- Kazdin, A. E., & Whitley, M. K. (2003). Treatment of parental stress to enhance therapeutic change among children referred for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504-515. doi:10.1037/0022-006X.71.3.504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er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54-64. doi:10.1111/j.1741-3737.2002.00054.x
- Khoury-Kassabri, M., Attar-Schwartz, S., & Zur, H. (2014). Understanding the mediating role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stress, efficacy, co-parenting and children's adjustment difficulties among Arab mothers. *Child Abuse and Neglect*, 38(6), 1073-1082. doi:10.1016/j.chiabu.2014.04.009
- Kim, P., & Swain, J. E. (2007). Sad dads: P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Psychiatry*, 4(2), 35-47.
- Lavenda, O., & Kestler-Peleg, M. (2017). Parental self-efficacy mi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low spousal support and stress. *Psychiatry Research*, 256, 228-230. doi:10.1016/j.psychres.2017.06.060
- Leung, C., Leung, S., Chan, R., Tso, K., & Ip, F. (2005). Child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in Hong Kong families. *Hong Kong Medical Journal*, 11(5), 373-380.
- MacCallum, R. C., Roznowski, M., Mar, C. M., & Reith, J. V. (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9(1), 1-32. doi:10.1207/s15327906mbr2901_1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313-328. doi:10.1207/s15374424jccp1904_3
- Morgan, J., Robinson, D., & Aldridge, J. (2002).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ur.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7(3), 219-225. doi:10.1046/j.1365-2206.2002.00242.x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doi:10.1111/j.1741-3737.2002.00944.x

- Noppe, I. C., Noppe, L. D., & Hughes, F. P. (1991). Stress as a predictor of the quality of parent-infant interac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1), 17-28. doi:10.1080/00221325.1991.9914674
- Nugent, J. K. (1987). The father's role in early Irish socialization: Histor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pp. 169-19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1), 65-73. doi:10.1111/j.1365-2214.2005.00487.x
- Seah, C. K. F., & Morawska, A. (2016). When mum is stressed, is dad just stressed? Predictors of paternal stress in the first six months of having a bab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7(1), 45-55. doi:10.1002/imhj.21546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91-106. doi:10.2307/352961
- Sinai, D., & Tikotzky, L. (2012). Infant sleep parental sleep and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mothers on maternity leave and in families of working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2), 179-186. doi:10.1016/j.infbeh.2012.01.006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doi:10.1111/j.1467-8624.1991.tb01580.x
- Vismara, L., Rollè, L., Agostini, F., Sechi, C., Fenaroli, V., Molgora, S., et al. (2016). Perinatal parenting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outcomes in first-time mothers and fathers: A 3- to 6-months postpartum follow-up study. Retrieved July 21, 2017 fr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919353>
- Voydanoff, P. (2005). Social integr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job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66-679. doi:10.1111/j.1741-3737.2005.00161.x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 (1990). Development of control of 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e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doi:10.1080/00223891.1990.9674020
- Widarsson, M., Engstrom, G., Berglund, A., Tyden, T., & Lundberg, P. (2014). Parental stress and dyadic consensus in early parenthood among mothers and fathers in Sweden.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8(4), 689-699. doi:10.1111/scs.12096

논문투고: 17.10.16
수정원고접수: 17.12.15
최종게재결정: 18.02.19